

[호텔/레저]

4월 면세점 호실적 기록, 입국자 수 개선 폭 증가

2018/05/25

■ 4월 면세점 매출액 +71.4% 증가, 인천공항 T1 (DF1, DF8) 최종 입찰자 수혜 예상

4월 면세점 매출액은 내국인 3억 달러(+5.3%, 이하 전년동월대비) 기록, 외국인 12.1 억 달러(+104.9%, YoY)를 기록하며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 3월(12.6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외국인 이용객 수가 +62.2% 증가하며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4월 전체 외래객 입국자 수와 중국인 입국자 수 회복 추세로 보았을 때 보따리상의 매출 견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공항 T1(DF1, DF8)의 면세 사업권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면세점이 참가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개 구역의 매출액은 17년 기준, 약 9000억 원 규모로 작년 면세점 매출 비중의 6.4% 수준이다. 중국인 관광객 회복 시 추가적인 면세점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 중소기업은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면세 사업자들의 실적 모멘텀이 기대됨에 따라 사업자 최종 입찰업체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그림2>.

■ 4월 내국인 출국자 수 증가 양호, 입국자 수 개선 폭 증가

4월 승무원을 제외한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약 195만 명을 기록했다. 입국자 수는 약 133만 명(+23.8%, YoY), 중국인 입국자 수는 37만 명(+60.9%, YoY)을 기록했다. 중국인 입국자 수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60.9% 증가하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그림4>, 전월과 비교해 회복 추세가 둔화된 모습이다<그림5>.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인 관광객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인 입국자 수는 17년 4월 누적 78만 명에서 18년 4월 누적 84만 명(+8.1%, 전년동기간대비)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면세점, H&B, 로드샵 등의 판매 채널에서 감소한 중국인 관광객의 일부 대체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인 입국 자수 증가에는 일본의 골든위크(황금연휴)가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기간 동안 1~2주 기간의 연휴 기간이 주어져 5월에도 일본인 입국자 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화장품/의류/레저

Analyst 조경진

(2122-9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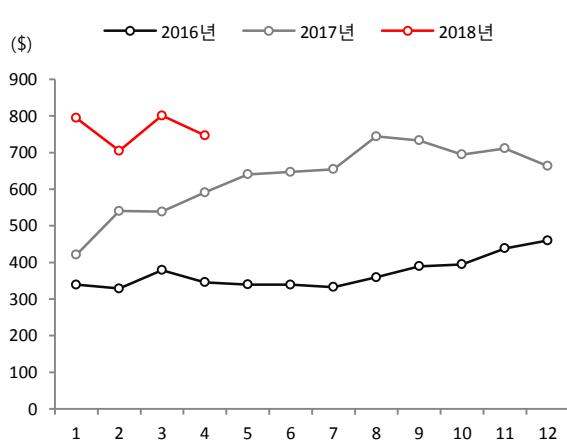
kjcho@hi-ib.com

<표 1> 신규 면세 사업자

| 구분 | 취급품목 | 위치 | 매장수 | 면적 | 입찰 참여 기업 |
|--------|-----------------------------------|-----|-----|--------------------|--------------|
| DF1 | 향수/화장품 | 동편 | 3개 | 1324m ² | 호텔신라 |
| | 전 품목 | 탑승동 | 19개 | 4767m ² | 호텔롯데 |
| DF8 | 피혁/패션 (부티크) | 중앙 | 4개 | 1814m ² | 신세계디에프 두산 |
| 일정 | 내용 | | | | |
| 5월 23일 | 참가등록접수 마감 | | | | |
| 5월 24일 |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 | | |
| 5월 30일 | 참가업체 제안서 설명회 | | | | |
| 6월 1일 | 사업권별 상위 1,2위 관세청에 통보 | | | | |
| 6월 중순 | 관세청, 낙찰대상자 확정 및 인천공항공사 최종 낙찰업체 선정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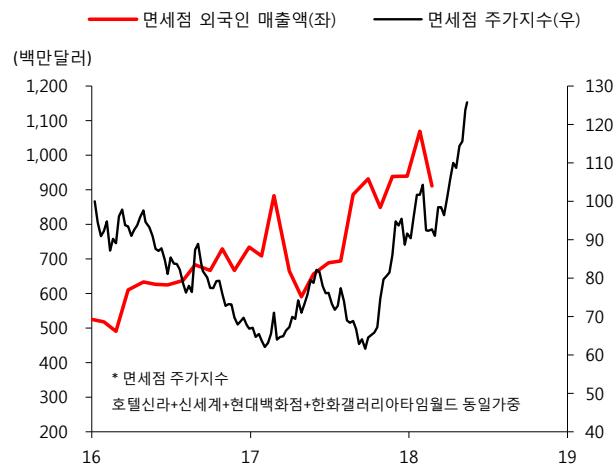
자료: 업계자료, 하이투자증권

<그림 1> 연도별 면세점 외국인 객단가 추이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하이투자증권

<그림 2>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과 면세점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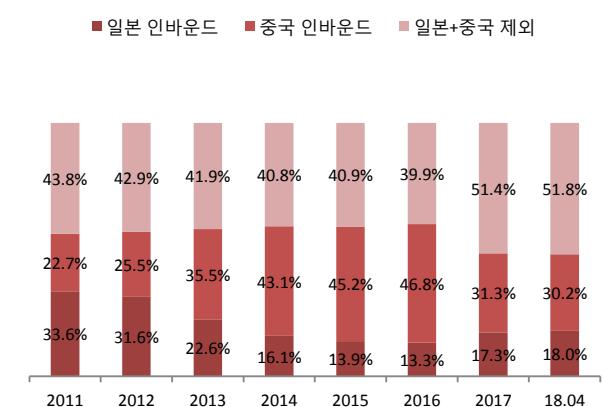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하이투자증권

<표 2> 최근 5년간 주요 면세 사업자 시장점유율 변화

| 사업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롯데 | 52.3% | 50.8% | 51.5% | 48.7% | 41.9% |
| 신라 | 30.6% | 30.5% | 28.2% | 27.7% | 23.9% |
| 신세계 | 2.3% | 3.1% | 3.8% | 7.8% | 12.7% |
| 합계 | 85.2% | 84.4% | 83.5% | 84.2% | 7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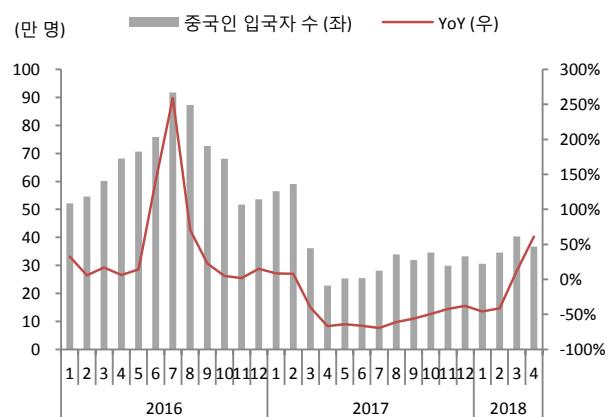
자료: 업계자료, 하이투자증권

<그림 3> 중국과 일본의 인바운드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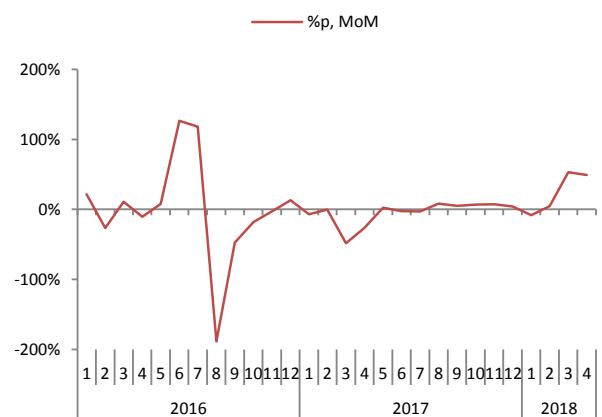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4> 중국인 입국자 수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5> 전월대비 중국인 인바운드 증감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4년 5월 12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03-31 기준

| 구분 | 매수 | 중립(보유) | 매도 |
|------------|-------|--------|----|
| 투자의견 비율(%) | 93.6% | 6.4% | - |